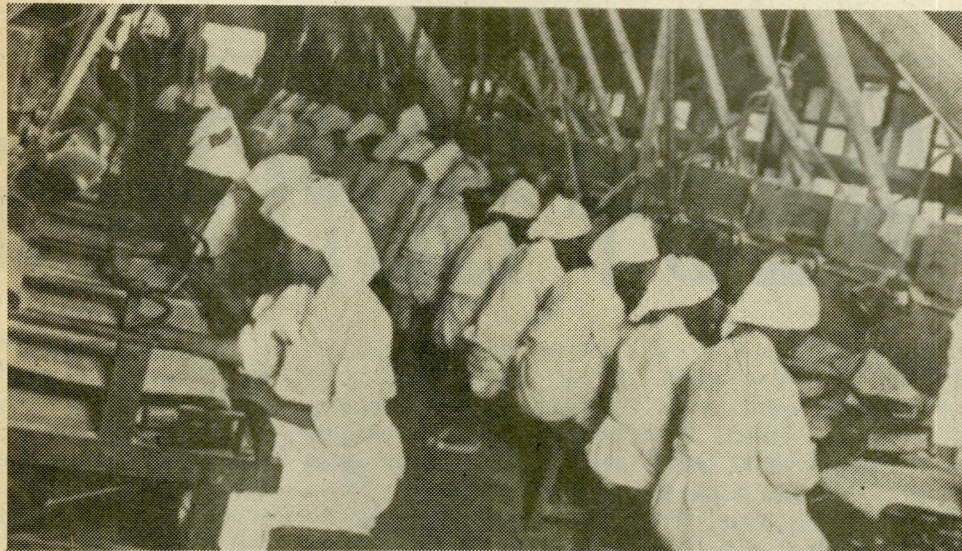




일제시대 적은 일당을 받고 공장에서 혹사당했던 여성노동자들. 이들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당에서 발간한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중에서).

일제하 근로자 직업병에 시달렸다

문옥륜·김창엽 교수팀 진폐증·소음성난청 가장 많아

영양섭취 부족...광산재해율 연 10% 이상

일제 강점기인 1920~40년대에 급증한 우리나라 공장노동자들은 영양섭취량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부족했을 뿐 아니라 온갖 산업재해 직업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대한예방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김창엽 교수팀의 논문 '일제하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문헌고찰'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조선의학회잡지> <조선의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위생요람> 등 일제시대 자료를 토대로 당시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노동자들의 영양섭취 총열량은 1천7백6칼로리로 일반인들의 평균 2천3백63~3천3백34칼로리에 훨씬 못 미쳤다.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해 1920~30년대 전체 광원 수에서 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광산재해율이 해마다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병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다.

이밖에 전기에 감전된 감압병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1년 낙동강철교 가설 공사 때에는 무려 4백59명의 노동자들이 '감압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이질·장티푸스·천연두·성홍열·디프테리아 등 급성전염성 질환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비율도 당시 일본인들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았으며, 26년 한제사공장 여성노동자의 100%가 내장 기생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생충 감염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하지만 3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전국 공장 1천1백99개, 광산 2백13개 중 병·의원이나 진료소를 갖춘 곳은 공장 20개, 광산 16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경 기자>